

처칠의 대공세 침몰시키고... 터키 國父는 공화국 깃발을 올렸다



송동훈의 세계 문명 기행

[다르다넬스해협과 무스타파 케말]

제국들이 탐한 보석, 1차 대전 격전지 - 14세기부터 다르다넬스해협을 장악한 오스만튀르크, 1914년에 獨과 1차대전 참전 '잘못된 선택' 처칠의 실수 '케말의 존재를 몰랐다' - 연합군 해군장

관 윈스턴 처칠 전쟁 돌파구 찾아 대공세 펼쳐... 케말, 미니 사단으로 해협 지켜내 "공격하라 명하지 않겠다, 죽어라" - 오합지졸을 勇兵으로 바꾼 케말 大戦은 졌으나 터키 국민 영웅으로... 술탄 폐지,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 주변에서 주머니 받거나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해협은 대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중국 입장에서 이 해협은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다. 또 대만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지역인 동아시아에 석유를 공급하는 생명선이기도 하다. 양쪽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대만해협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다르다넬스(Dardanelles)해협이 떠올랐다. 지중해 북동쪽 에게해의 갈리폴리 반도와 소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좁고 긴 다르다넬스해협. 보스포루스해협과 함께 에게해와 흑해를 잇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는 전략적 요충지다. 오늘날 터키 소유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이 통제하고 지배했다. 트로이, 아테네,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로마, 비잔틴, 베네치아, 오스만튀르크... 모두 당대를 품기했던 제국들이다. 제국이 아니면 감히 손에 넣을 수 없는 다르다넬스해협. 가히 제국의 왕관을 장식하는 빛나는 보석이라 칭할 만하다.



모든 제국이 탐냈던 해협

오늘날의 다르다넬스해협은 평범하고 평온하다. 아시아에 위치한 차나칼레해협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인구 20만명의 관광도시다. 해안가에는 호텔과 식당이 즐비하고, 한가롭게 페리만이 양안(兩岸)을 오갈 뿐이다. 해협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페리를 타고 유럽 쪽의 겔리볼루 반도로 넘어가야 한다. 페리는 차나칼레 항구에서 수시로 출발한다. 해협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허무함과 감동이 묘하게 얽힌다. 얼마나 많은 정복자가 원대한 꿈을 안고 이 해협을 건넜던가? 페르시아의 대왕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거꾸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이 해협을 건넜다. 한니발을 이겨 카르

타고 제국을 무릎 꿇린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도 셀레우코스 제국을 응징하기 위해 이 해협을 건넜다. 그들이 너무나 어렵게 지난 해협을 나는 너무 쉽게 건너니 허무하고, 수천년의 시차를 두고 그들과 같은 길을 가니 벅차다. 그렇게 건넌 겔리볼루 반도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반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최악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수많은 군인이 다르다넬스해협을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 갈리폴리 반도에서 산화했다. 반도 곳곳에 유적지와 묘지가 널린 이유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갈리폴리 남단의 차나칼레 순교자 기념비다. 사각의 강인하고 웅장한 기념비가 다르다넬스해협의 입구를 응시하고 있다. 사방으로 뚫린 기념비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들면 거대한 터키 국기가 천

장 가득하다. 잘 정리된 무덤들 사이로 유독 한 사람의 동상과 부조가 이곳저곳에 놓여 도드라진다. '터키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다. 그가 왜 이곳에 있을까?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중 이 반도 전체를 무대로 진행했던 갈리폴리 전투(1915년 2월~1916년 1월)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아타튀르크다.

제국들의 운명을 건 전쟁

터키의 전신(前身)인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다르다넬스해협을 장악하면서 강대국의 기를 마련했다. 2대 군주 오르한(Orhan) 때였다(1354년). 해협 좌우의 아시아 아나톨리아와 유럽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중동 (...1페이지에 계속)



▲ 갈리폴리 반도 남부 차나칼레 순교자 기념비 근처의 무스타파 케말(아타튀르크) 동상.



▲ 1차 세계대전 때인 1915년 5월 27일 다르다넬스해협 갈리폴리 전투에서 독일 U-21 어뢰에 격침된 영국 전함 HMS 마제스티크호의 마지막 순간.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터키의 전신(前身) 오스만제국에 대패한 전투다. 연합군 사망자 25만명 중 다수가 영국군 지휘로 전투에 참가한 호주·뉴질랜드 군인들이다. 오스만군 지휘관이던 무스타파 케말은 독일의 지원으로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했다.